

이용재의 잡문 노트

전라남도 1박2일 가을여행

이용재 (칼럼니스트)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서늘해 청명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가을 주말, 왠지 집에 있으면 억울하다는 분들을 위해 '육해공'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전라도 1박 2일 코스를 소개한다.

토요일 아침, 부지런히 준비해 보온병에 모닝커피 한 잔 담아두고 집을 나선다. 경부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고창-담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네 시간 남짓이면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 닿는다. 임금님이 드시기 편하라고 한우갈비를 곁게 다져 만들었다는 떡갈비의 본고장이니, 읍내 중앙로를 따라 견노라면 원조집이라는 두 군데를 포함한 떡갈비집을 만날 수 있다.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인 돼지갈비도 좋다.

한편 고기를 올린 상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중앙로 끝의 국수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삶은 계란과 비빔국수 한 그릇으로 가볍게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좋다. 무엇으로 끼니를 해결하든 후식, 또는 휴식 삼아 관광제림길을 산책하는 것은 필수며 '강추'다. 물 흐르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 나부끼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핸드폰짚은 정말 잠시 꺼두고 싶을 정도로 평화롭다.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읍내 가까이 있는 대나무 박물관이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또한 좋은 선택이다.



담양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한 시간 반 정도 달리면 한우와 표고버섯의 고장 장흥에 닿는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는 동네이니 한우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안쪽, 직판장과 식당을 겸업하는 매장이 여러 군데 자리 잡고있다. 아래층에서 취향에 맞는 고기를 골라서는 위층에서 자릿값으로 실비를 지불하고 먹는 형식이다. 소고기와 함께 키조개 관자, 장흥 표

고를 구워먹는 '장흥삼합'도 있다. 군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담진강을 따라 키가 큰 숙박업소들이 군데군데 서있어, 방만 잘 골라잡는다면 좋은 조망마저 의외의 덤으로 얻어 쥐고 하룻밤 묵을 수 있다.

장흥에서 묵는 하룻밤이 일석이조 격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이웃 동네가 녹차의 고장 보성이기 때문이다. 30분만 달리면 닿는 보성에서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다원을 거닐거나, 차밭이 앉아 있는 산등성이 내리막길을 구불구불 따라 율포솔밭해변에 이르는 드라이브를 추천한다. 서로 가까이 있어 그런지, 바다도 녹차밭도 한층 더 신선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알찬 1박 2일 주말여행, 유종의 미는 변산반도에서 거두고 올라온다. 반도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곰소는 첫걸음으로 유명한 동네니 따뜻한 밤만 지어 바로 저녁상에 올릴 수 있는 무침젓갈을 입맛 따라 살 수 있다. 젓갈만으로 아쉬운 사람들을 위해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시장에는 건어물이며 각종 어패류가 선택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도 굵은 냄새가 시장통을 가득 메우는 전어도 좋고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놈들을 바로 건져 스티로폼 박스에 척척 담아주는 새우도 훌륭한 선택이다. 귀찮으니 아예 저녁까지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활어횃집도 성업 중이지만, 트렁크 가득 먹을 것을 채워서는 해가 뉘엿뉘엿 질 시간에 맞춰 드라이브하는 변산반도 해안선이 더 별미가 아닐까 한다. 잊을 때쯤 되면 나타나는 길거리 가게에서 모시잎떡 한 꾸러미만 챙긴다면 적어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출출함 때문에 경치 감상을 제대로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해안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군산까지 시원하게 달린 뒤 다시 서해안 고속도로로 합류해 서울로 돌아오면 된다. 🍷